'대화의 희열2' 소설가 김영하, 지지 않고 버텨라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파격, 새로움, 아이러니. 소설가 김영하의 작품 세계를 말하는 단어다. 김영하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신선하고도 강렬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지난 15일 방송된 KBS2 토크쇼 '대화의 희열2'에서는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길을 걸어온 소설가 김영하가 출연했다. 김영하는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 들려줘

이날 김영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나아가 청춘들에게 지지 않고 버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큰 성공과 환호를 생각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것. 조금 부서질지라도 패배하지 않고 버티면 언젠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밟아온 소설가 김영하의 길이 이러한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김영하는 등단부터 기존의 틀을 깬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그는 신춘문예와 같은 정통 문학 잡지가 아닌, 비주류 계간지로 문학계에 첫 발을 들였다. 신춘문예에서 떨어진 그가 빨리 등단을 하려 하자, 주변에서는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말라며 그를 만류했다고. 경영학과 출신인 김영하는 당시 문학계를 잘 몰라서 더 용감했다고 말하며, 파격적 등단의 배경을 이야기했다.

김영하는 대표작 '살인자의 기억법'을 비롯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검은 꽃', 최근 '여행의 이유'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스타 작가다. 하지만 늘 그가 무언가를 쓰려 할 때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다고. 김영하는 "그럴 때 이걸 써 봐 야지"라고 생각했다며, 그의 기발한 작품 세계의 비하인드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김영하 작가는 소설가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작가의 삶이 자유롭고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김영하는 "예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 그 작품을 사주는 거다. 예술가로 살아가려면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예술가에게 돈은 뗄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영하는 한 번도 원고료를 떼인 적 없다고 말하며, 예술에 대한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작가 역시 노동자라는 것이다.

특히 김영하는 소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소설 안에는 질풍노도의 인간 군상이 담겨 있고, 이러한 소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김영하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를 강하게 만드는 소설의 힘을 강조했다.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김영하의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김영하는 판매 성적에서 불리하지만, 동네 서점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판을 출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풀뿌리 독서 조직이 강해져야 책과 서점의 미래도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려는 김영하 작가의 소신을 알 수 있던 이야기였다.

파격과 소신의 길을 걸어온 소설가 김영하. 조곤조곤 강력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조언은 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 소설이 가진 특별한 매력과 소설가로서의 권리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김영하와의 대화는 새로웠고, 또 한번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했다.

한편 KBS2 '대화의 희열2'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45분에 방송된다.

'이몽', 시간 순삭 이요원X유지태X남규리 절묘한 합동작전

그야말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2시간이었다. MBC '이몽'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부터 이요원의 정체 오픈 임박까지 긴장감 넘치고 가슴 먹먹해지는 스토리를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며 시간을 순삭하게 했다.

15일 방송된 MBC 특별기획 '이몽'(연출 윤상호/ 극본 조규원) 23-26화에서는 더욱 격렬해진 독립운동기와 절묘한 합동작전을 펼치는 이영진(이요원 분)-김원봉(유지태 분)-미키(남규리 분)의 모습이 그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이영진-김원봉은 이도일몽(길은 다르지만 꿈은 하나다)이라는 이념 하에 일왕 처단 합동작전에 착수했다. 동시에 김구(유하복 분)-안공근(김범석 분)의 입국을 알게 된 후쿠다(임주환 분)-마쓰우라(허성태 분) 등 특무팀 또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영진에 대한 의심을 품던 후쿠다는 총독부 폭파를 비롯한 사건들의 배후에 이영진-김원봉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마쓰우라의 말에 경성 정보의 중심인 구락부 유마담(김서라 분)에게 이영진의 정보를 캐기까지 이르러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처럼 삼엄한 감시를 뚫고 동아일보 상하이 특파원 신언준(이주석 분)이 입국하며 긴장감을 한층 높인다. 그는 이봉창 의사 의거와 관련된 임시정부의 성명서 신문 기고를 돕고자 입국한 것. 이어 이봉창 의사의 폭탄중 한 개가 불발돼 아쉽게 일왕 처단에는 실패했지만 체포되는 순간에도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숙연함을 더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신언준에 의해 굽히지 않는 한국 독립운동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는 것이니 부디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봉창 의사의 유언에 이어, 당시 신문에 실렸던 그의 기사들과 한인애국단 가입 선언문까지 담겨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이영진-김원봉은 생각지 못한 인물의 부활로 정체 발각 위기에 봉착해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만주 대전투에서 죽였다고 생각한 관동군(만주에 주둔하던 일본 육군부대) 무라이가 히로시(이해영 분)의 지인으로 살아 돌아온 것. 이에 이영진은 곧장 무라이를 죽이기 위해 찾아갔지만, 자신과 김원봉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겨 놨다는 말에 그를 죽이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후 도청을 통해 무라이가 유마담에게 정보를 맡겼음을 알게 된 이영진과 의열단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영진은 고민 끝에 미키(남규리 분)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키는 무라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마담에게 무라이 때문에 구락부가 조사대상이 됐다는 소문이 있다며 위기감을 주입했다. 이에 유마담은 곧장 서류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를 뒤쫓아간 김원봉-김남옥은 서류 입수에 성공했다. 이어 미키는 히로시에게 이영진과 무라이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관계라고 언급했고, 앞서 이영진이 아닌 집사 김현옥(이영숙 분)을 반역자로 의심해 체포했던 히로시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후 히로시와 마주한 이영진은 김현옥을 살리고, 그의 손을 빌어 무라이를 처단하기 위해 유태준(김태우 분)과 그 가족의 죽음으로 얽힌 자신과 무라이의 악연을 밝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이몽'은 더욱 격렬해지는 독립운동과 긴장감을 자아내는 쫀쫀한 스토리로 2시간을 꽉 채우며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특히 히로시가 이영진의 정체를 눈치챔과 동시에 후쿠다 또한 이영진이 임시정부의 밀정 파랑새임을 확신한 상황.

이에 정체가 발각된 이영진과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이 거세지는 일제의 압박 속에 어떤 독립운동기를 그려나갈지, 더욱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증폭된다.

블랙핑크 제니, 6월 개인 브랜드평판 1위…아이린 2위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2019년 6월 개인 브랜드평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5일까지 걸그룹 개인 455명의 브랜드 빅데이터 80,903,675개를 추출하여 걸그룹 개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 행동분석을 가지고 만든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 빅데이터 94,242,711개와 비교하면 13.24% 줄어들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분석을 통해 걸그룹 개인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걸그룹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도 포함하였다.

2019년 6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블랙핑크 제니, 레드벨벳 아이린, 블랙핑크 지수, 여자친구 신비, 아이즈원 장원영, 레드벨벳 슬기, 마마무 화사, 트와이스 나연, 체리블렛 지원, 트와이스 모모, 레드벨벳 조이, 여자친구 소원, 아이즈원 조유리, 블랙핑크 로제, 트와이스 정연, 아이즈원 김민주, 위키미키 최유정, 아이즈원 안유진, 오마이걸 아린, 트와이스 지효, 아이즈원 최예나, 레드벨벳 예리, 에이프릴 나은, 블랙핑크 리사, 우주소녀 여름, 아이즈원 미야와키 사쿠라, 트와이스 채영, 아이즈원 강혜원, 러블리즈 정예인, EXID 솔지 순으로 분석되었다.

1위, 블랙핑크 제니 브랜드는 참여지수 366,474 미디어지수 404,779 소통지수 668,571 커뮤니티지수 529,653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69,477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브랜드평판지수 2,431,869 와 비교하면19.01% 하락했다.

2위, 레드벨벳 아이린 브랜드는 참여지수 186,886 미디어지수 700,986 소통지수 655,633 커뮤니티지수 295,48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838,995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브랜드평판지수 1,321,007와 비교하면39.21% 상승했다.

3위, 블랙핑크 지수 브랜드는 참여지수 296,098 미디어지수 336,852 소통지수 699,946 커뮤니티지수 488,4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821,308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브랜드평판지수 1,660,376와 비교하면9.69% 상승했다.

4위, 여자친구 신비 사쿠라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146 미디어지수 35,077 소통지수 872,021 커뮤니티지수 591,810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04,054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브랜드평판지수 1,346,349와 비교하면 19.14% 상승했다.

5위, 아이즈원 장원영 브랜드는 참참여지수 482,724 미디어지수 266,698 소통지수 453,153 커뮤니티지수 309,91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512,490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5월 브랜드평판지수 2,206,943와 비교하면 31.47 %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19년 6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블랙핑크 제니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2019년 6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블랙핑크 제니 브랜드는 링크분석에서 '귀엽다', '즐겁다', '섹시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콘서트, 패션, 킬 디스러브'가 높게 분석되었다. 긍부정비율분석에서는 긍정비율 60.59%로 분석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음력 5월 15일)

▶쥐띠 벌여 놓은 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 3, 10, 12월생 부부간의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니 한 발 양보하는 미덕을 가질 것. 성질대로 하지 말고 대화로써 좀 더 사랑탑을 높이 쌓아가라.

▶소띠 떠나간 사람에 연연해 하다가 내 몸 상하는 줄 왜 모르는가. ㄱ, ㅅ, ㅁ, ㅂ성씨 잠시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면 돌아올 수. 성급함을 보이면 상대는 더 멀어질 수 있으니 포근히 감싸줌이 좋겠다. 2, 4, 8월생 변동은 서두르지 말 것.

▶호랑이띠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과 행동이 옆길로 빠지면 어려움만 닥칠 뿐이다. 2, 5, 9, 11월생 마음고생이 크지만 인내하며 자식에게 신경 쓸 것.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게 아닌만큼 순리대로 흐름을 따라 맞추어 나가면 좋은 일 있을 듯.

▶토끼띠 큰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잘못된 곳에 손댈 수. 적게 먹고 적게 내놓아라. 지난 세월 원망 말고 땀 흘려 노력할 것. ㄱ, ㅇ, 초성씨 뿌려 놓은 것 거두어들일 때 내 것이 됨을 알라. 사람 낳고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난 것 아니다.

▶용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놓아주지도 잡지도 못하는 격. 마치 상대의 마음 꿰뚫어 보기라고 한다는 듯 말을 함부로 하다 서로 감정만 대립될 수 있음을 알라. 3, 6, 8, 11월생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라.

▶뱀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딴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슬기롭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좀 더 화목으로 이끌어 감이 좋겠다. 1, 6, 7, 9월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 있다면 순조롭게 풀릴 수. 내조의 힘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대성할 수 있음을 알 것.

▶닭띠 성질나는대로 실언해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버스 지난 후 손드는 격. ㄱ, ㅅ, ㅁ, 초성씨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판, 주류제조 업자는 욕심은 금물. 친한 사람의 부탁이어도 보증이나 책임질 일은 하지 말 것.

▶양띠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 돈 문제로 언쟁 있을 수 있다. 진실만이 약임을 알 것. 진정성과 함께 형편을 그대로 보이면 갈등은 끝. 그동안 친했다고 오늘도 그를 믿지는 마라. 때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한 말 명심해야 한다.

▶원숭이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주관있게 밀고 나갈 것.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권하지 말라. 두 번은 배신이 없다. 호랑이, 개, 돼지 띠는 이상 없겠으나 당신의 마음이 문제인 듯.

▶닭띠 인생은 장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다. 생일이 짝수인 여성은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격. 이유없이 미워지는 마음을 잡아야 할 때. 한 번 맺은 인연 참아가며 극복할 것. 별거수 있으나 인내와 노력으로 치유될 수.

▶개띠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겨울에 수박이 있다고 돌밭에 나가 수박 찾지 말 것. 지금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때다. ㄱ, ㅈ, ㅇ, ㅂ성씨 자기 재주에 자기가 당할 수 있으니 서북간의 일 뒤로 미룰 것.

▶돼지띠 자식의 건강이나 취직 문제가 걱정에서 멀어져 가는 운세. 자신이 직접하는 사업은 진행이 잘되어가나 동업이라면 힘에 겨운 상태다. 2, 3, 7, 11월생 확장은 무리다. 호랑이, 말 띠를 멀리하면 하는 일 더 막힌다. 1, 2, 3월생 동쪽이 길.